

연중 제 19 주 일

기도서 P. 409 A해

제1독서(열왕전 19: 9 11-13절)  
제2독서(로 마 9, 1-5절)  
복 음(마태오 14, 22-33절)

#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 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숫아날 구멍은 없는가?

김 진 석 신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마태오 14, 32)—

입추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살인적」이라고 말해왔던 무더위는 아직도 기세가 등등하다. 유난히도 뜨겁고 불쾌하게 느껴졌던 금년 여름은 수은주를 높이는 고온(高温)의 타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더위와 싸우느라고 비저뿤을 흘리고 심신이 피로할 때 들려왔던 시내버스의 한강 추락사건을 비롯하여 아파트사건, 교사자격증 부정 발급사건, 전직 모(某)의원의 추행 사건 등은 찌는듯한 무더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활을 피곤하게 만들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은 불안한 사태에 편승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인간 불신 풍조에 효과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는듯 하다.

뛰는 물가를 따라갈 수 없으니 괴롭고, 주변에는 안심하고 믿을만한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 고통해지는 느낌이고,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불안하기만 하다. 정말로 이러한 괴로움과 불안이 뉘범법이 된 채 이끌리듯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일찌기 서둘러 뉘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이러한 고뇌들이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하느님의 뜻에 맞는 줄더 나은 세상에 희망을 두고,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가?

숨통을 조르듯 우리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몰아붙이는 모든 사회악의 배후에는 하나같이 적용되는 공통 분모가 있으니, 그것은 현실 만족에 혈안이 되어 물질의 눈에 보이는 하느님으로 확신하는 구름된 사고 방식이다. 그 결과,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기 전에 「나」만을 앞세우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있는대로 동원하여 은갖만 죽을 다 누리려하니 하느님도, 이웃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풍랑에 까블리는 배와 같이 위태롭고 불안한 인생이란 자기가 처놓은 울가미에 걸려 신을 하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권좌를 탈취한 인간의 교만과, 하느님의 능력을 빙자한 돈의 위력에게 계 위치를 찾아 주고 우리 안에 하느님을 모셔오는 길 뿐이다.

이교가는 물질이에 바가지를 얹어 물을 안정시키듯이 세파에 시달리고 고뇌로 마음이 부서질 때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느님을 만나려는 노력만이 답답하고 혼란해져가는 우리에게 오늘을 대처하는 힘을 얻게 해 줄 것이다.



## 바 오 로 6 세

— 위대한 평화의 사자

전란으로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불신과 우유부단으로 평화가 가물거릴 때, 그는 양심의 목소리로 인류의 비참을 일깨웠고,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어둔 시각에 형제애와 고통을 되새겼다.

끓주리고 병든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는 사회적 관심을 돌리고 고통을 덜어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의 사랑의 요구, 평화에의 결단, 그리고 정의의 찾는 압력이 아니었다면 세계가 걸어온 지난 15성상은 훨씬 고통스럽고 비참하며, 부끄러운 시대였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바오로 6세는 이 시대가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정신적인 힘이었다.

우리가 바오로 6세의 서거를 슬퍼하고, 온 세계가 그의 죽음을 그럴 수 없는 손실로 애도해 마지 않는 까닭이 있다. 그의 80년의 생애와, 특히 로마 교황으로 15년의 재위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삶의 존귀와 정의의 용기를 북돋워준 값지고 숭고한 거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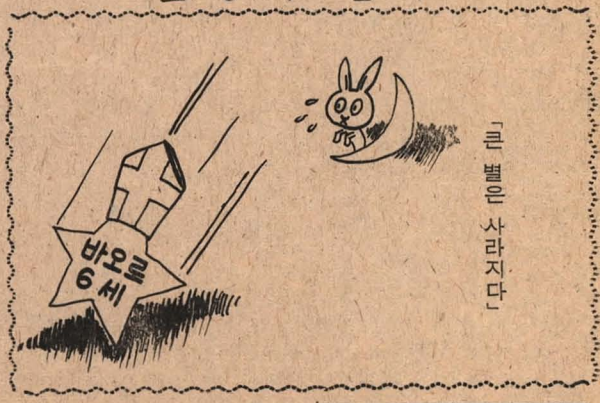
바오로 6세는 분열된 세계에서 화해의 사자로 앞장섰다. 그는 그리스 정교회 및 영국 성공회와 대화를 가졌고, 신교의 총본산격인 세계 교회협의회가 있는 제네바를 찾았으며, 예루살렘의 성지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 진력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을 순례한 첫 교황이 됨으로써 유대교와 기독교의 장벽을 헐어버리는데 기여했다는 찬사를 샀다.

무엇보다도 월남전쟁 및 중동전쟁의 불을 잡는데 그의 막중한 교황직을 십분 구사하였다.

우리 시대는 그의 위대한 사명에 힘입은바 크다.

(韓國日報 8월 8일자 「사설」에서)

## 숲 정 이 산책





# 교 황 바 오 로 6 세

## —인류의 목자, 평화의 사도

교황 바오로 6세의 서거(逝去)에 대한 슬픔을, 김수환 추기경은 “나는 참으로 아버지같이 모시던 집안의 어른을 잃은 것같은 슬픔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해서 잘못이 없으리라.

우리의 위대한 목자, 바오로 6세는 6월 서거에 앞서 휴일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전세계의 굶주리고 병들고 일자리없는 사람들을 잊지말라”고 촉구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다. 이는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영적 지도자요, 평화의 사자(使者)요, 목자(牧者)임을 보여주는 일단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어떤 신문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그는 언제나 미소를 잊지 않고 있었다. 세계 시민들 앞에선 그들을 포용할듯이 두 팔을 벌이거나, 그들을 축복하듯이 두 팔을 높이 쳐들고 있었다. 아니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다스곳이 숙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자세였다. 이것은 로마 교황 바오로 6세가 즉위 이후 지난 15년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한결같은 모습이었다.

끝도 없는 전쟁·그 위협·폭력의 난무·인권의 유린·부도덕·분열과 파괴·반목과 불화. 바로 이런 세계, 이런 교회가 그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요한 23세의 뒤를 이어 교황에 즉위한 바오로 6세는 무엇보다도 「행동하는 교황」의 인상을 깊이 남겨주고 있다. 그는 즉위 3년만에 유엔을 방문하고 인류에게 평화를 호소했었다.

〈인간은 전쟁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간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인지(印支. 인도 차이나) 반도가 전화(戰火)에 휩쓸려 있을 때도 그는 해마다 연초엔 소련의 포드고로니, 중공의 모택동, 월맹의 호지명에게 신년 메시지를 보내고 종전(終戰)을 종용했다. 그에게 종교적인 이단(異端)도, 이념적인 적도 없었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또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다.

오늘의 가톨릭 교회는 현실의 문제들을 안고 세기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인구폭발·성의 자유화·진보와 보수의 갈등. 만년(晩年)의 바오로 6세는 이런 난문제들을 앞에 놓고 햄릿과 같이 번뇌의 나날을 보낸 것 같다. 그러나 산아제한 문제에 관해 그는 끝내 종교적인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여러분은 삶의 향연에 초대되는 손님을 줄이기 위해 비합리적인 인위(人爲)의 산아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식탁에 올린 빵의 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1897년 9월 26일 이탈리아의 한촌(寒村) 콘첸시

오에서 태어났다. 어릴때부터 병약해 통학조차 불편했으며, 1차대전때는 징병검사에도 불합격했다. 신학교에 입학한 것은 그런 인연이었던 것 같다.

1954년부터는 이탈리아의 북부 밀라노 교구의 교구장이 되었다. 이 도시는 전통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아성이었다. 몬티니 대주교(바오로 6세의 추명)는 바로 이 도시에서 「노동자의 대주교」로 존경을 받았다. 〈인민의 발전(※ 제 민족의 발전)〉이라는 사회 경제문제를 주제로 한 그의 회칙(回勅)은 「노동자의 대주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었다.

교황의 일상(日常)은 초인적인 건강을 필요로 할 만큼 번거롭다. 연(年) 1백만명의 접견, 하루 8회 이상의 강론, 긴시간의 독서.

그는 만년에 교황의 임기를 80세로 제한하는 칙령을 스스로 내렸었다. 향년 80세. 그는 자기의 내일을 알고 있었던것 같다. (中央日報 8월 7일자 噴水臺)

그분은 평소에 한국을 사랑하셨다. 그분은 「한국의 여러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한국에서 온 순례자들을 항상 반갑게 맞아 주셨으면, 한국의 노래(아리랑)를 청해 듣기도 하셨다 한다. 1975년 성년 순례시에도 베드로 광장에 온집한 자국 순례단들 가운데 특별히 한국을 초청하시며, 뜨거운 축복을 주셨다.

또한, 그분은 전주교구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셨다. 그분이 가시기 50일전에, 우리 교구장이신 김재덕 주교님이 그분을 알현하시고, 그 소식을 이렇게 알려왔다. “6월 16일 12시 20분에는 30분간 교황 성부를 알현했습니다. 한국의 첫 자치교구인 우리 교구에 대하여 예상외로 많은 것을 알고 계셨으며,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역사는 그분의 공과를 재평가할 날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이 참으로 내적으로 믿음이 깊고,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헌신적 사랑에 산거룩한 교황이었다는데 많은이가 의견을 같이 할 것을 확신한다.」(김수환 추기경)

〈3면에서 계속〉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우리 조국의 안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욱 협력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고, 정의롭고, 자애롭게, 국사에 임하시도록 간절한 기도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 세상의 양심회복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 교구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지혜로운 협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내내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기를 빕니다.

1978년 8월 2일

전주교 춘천교구장 박도마 주교

안 경 신장개업!

군 산 이태리 안경원

主 廳 도 민 고 (석수)

군산시 중앙로 1가 10

전화 군산 ③ 3 0 8 0 번

(안과처방 조제 각국수입렌즈 구비)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러판매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③ 3032 이리 8629

한 통 앞 (모이세)



### 가톨릭 농민회는 공산주의와 관련이 없다.

모든 성직자와 신자 여러분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구내의 모든 성직자와 신자 여러분께 마침내 슬픈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에 이 서한을 보냅니다.

지난 7월 29일날, 우리 춘천교구 가톨릭 농민회 회원 3분이 춘천 지방법원에서 중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 영어의 교초를 겪고 있는 세분의 농민회원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더 할 수 없이 슬픈 일이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슬픈일이요, 우리나라의 대외적 국위를 생각해서도 슬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가톨릭 농민회가 공산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농민회가 공산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또 이러한 말을 꾸민 사람들도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느님의 존재와 사람의 영혼을 부정하는 무신론에 의지하는 사상입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만큼 하느님의 모든 권리를 부정하고 모든 종류의 윤리를 전복하고자 하는 사상입니다. 사람의 영혼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사람의 모든 권리를 거절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공산주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며, 공산치하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 교우들이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공산침략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조치는 이해할 수 있고, 또 자유의 전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양보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감수해야 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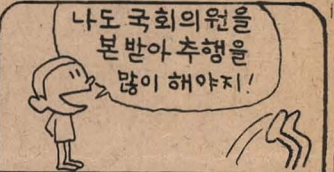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세 젊은이들은 어떤 혁명이나 폭력을 모의 하였거나 행사한 것도 아니요,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대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들 세분이 진실한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는 헛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춘천 교구장인 본인이 알기로는 그분이야말로 진실한 천주교 신자요 교우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영적인 지도도, 고해성사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고 더욱이 미사참례나 영성체마저 영할 수 없는 일은 여간 슬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 세분의 교우들이 하루속히 석방되도록 간담없이 기도를 드릴 것이며, 또 조속한 시일안에 석방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도 이 세분을 위해서, 이분들이 영어의 고난중에서도 항상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침묵의 교회와 모든 공산치하에서 신음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적인 구사가 아니라 오직 조용한 기도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정의구현을 위해 노력함이나 평화로운 방법, 화해로운 방법도 우리 목적의 하나입니다.

(2 권 계속)

### 요심이 (263) 김병오



### 전주 스타 사진관

전화 6094

급구 견습공 모집

만 16세~20세 미만

◇결연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박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진안, 장계, 대리점)

진안전화 577번

장계전화 주간 9번, 야간 40번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 건강 관리 센터 ◎

###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열 중앙 시장동

(전화 4577, 5789)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료

### 문화양행

오 중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력은행 맞은편 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양심을 찾자 ★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원규 (야교버)

###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교황 바오로 6세 서거...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 신부·수녀 서서 연수회 (21일<월> 오후 5시-24일<목> 오후 1시, 가톨릭 센터)
2. 성령 쇄신 세미나 (28일<월>-9월 1일<금>), 가톨릭 센터, 회비 1만원, ※ 선착순 40명)
3. 마인드 콘트롤 (17일<목>부터, 가톨릭 센터, 강사-윤상균(파로) 선생)
4. 추가경기 쟁탈 전국 응변대회 (10월 3일<화>), 서울명동문화회관, 주최-한국천주교 평협)  
※ 주제-교회는 사회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시간-10분, 200자 원고지 10~15매)  
※ 자격-가톨릭 초·중·고교생, ※ 문의 접수처-교구 평협(접수마감-8월 30일)
5. 제 2회 성심여중·고 동창회 (20일<일> 10시 반, 장소-모교, 회비-1천원)  
※ 76학년도와 77학년도 졸업생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준비-미사 도구)  
※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모교 밑알 전집실로 연락 바람
6. 방저기 3회 형제회원 1일 피정(참가비-500원 점심지참, 주최-천복지구 협의회)  
※ 천주지구-19일<토> 9시-오후 5시, 중앙성당, 대상-노송, 중앙, 전동 형제회  
※ 이리지구-20일<일> 9시-오후 5시, 창인동 성당, 대상, 창인동, 주현동 형제회
7. 중·고등학생 제 3지구 월례회 (13일<일> 오후 2시, 황등 성당에서)

□ 순정이 대금 좀 도와주세요.

####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임현배  
사도 회장 오영복

1. 꾸리아 월례회 : 오후 2시 <강당>
2. 중·고학생 특별교리  
일시 : 14~19일까지, 오후 4시~6시  
장소 : 강당, 지참물 : 성경, 가톨릭 교리서
3. 성모승천 대축일 (15일) 미사시간은 주일과 같음
4. 성모회 모임 : 16일(수) 오전 9시
5. 공식미사 예절  
금주 (13일) 복사 : 김옥기, 양쌍주, 해설 : 장남수  
성모승천 (15일) 복사 : 윤판만, 장남수, 해설 : 양학도  
다음주 (20일) 복사 : 엄판석, 김형택, 해설 : 임주택
6. 35사단에 신앙서서 30권 보내드렸습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께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51,406원

#### 5. 중·고등학교 각 쉼조치

- 해성 : 의장-최경용, 총무-김만호, 지도자-이재준  
베아리 : 의장-이종기, 총무-이영재, 지도자-이종구  
삼파 : 의장-김정자, 총무-김미란, 지도자-이영현  
진주 : 의장-장미현, 총무-김영숙, 지도자-김영자
6. 1일교장 : 오늘-홍마리아 자매  
다음주-장베드로 형제

※ 중·부착용 선공기 3대 (의명)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13,000원

####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선교주일 : 10시미사 후, LM 간부회
2. 주일학교 방학 : 9월 3일까지
3. 고백성사 및 대침소 : 14일 성모승천 준비
4. 성모승천 대축일미사 : 주일과 같음
5. 첫 영성체 축하합니다 : 67명
6. 8월중 어머니미사 : 매주<수> 오전 10시
7. 신축헌금 (제10만)  
김귀은 (15,000원), 서명덕 (7,500원), 선옥순 (10,000)  
정양동 (50,000원), 박경환 (7,500원), 송정숙 (5,000)

□ 지난주 봉헌금 : 43,040원

####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임희복  
사도 회장 김성익

1. 성모회 정기총회 : 오늘 공식미사 후  
회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2. 신우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
3. 신용조합 월례회 : 8월 18일(금) 저녁 8시
4. 성우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첫 영성체식 : 성모 몽소승천 대축일 10시미사에 부  
모임들은 전원 참석하세요
6. 프린치프 청장년회 지원자 위한 모임 : 8월 13일 부  
터 매주 하오 5시30분은 지원자 위한 수련입니다
7. 몽소승천축일미사 안내 : 오전 6시·오전 10시·  
저녁 7시 반

□ 지난주 봉헌금 : 64,510원

#### (술정미)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주일학교 하기교리 무사히 마쳤음  
학생 : 130명, 교사 : 6명 수녀님 감사합니다
2. 중·고생 하기교리 : 술정 대축일 후
3. 유아세례식 : 매월 끝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95,320원

####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임덕상  
사도 회장 유제상

1. 교리교사님들 더위에 수고 많았습니다  
후원금 및 간식 도와주신분 감사합니다  
(조준석, 신동숙, 이준민, 이영남, 박영길)
2. 대축일 준비 대침소 : 13일 오후 2시  
청년·학생 : 비, 결례 준비 바람
3. 대학생 회원모임 : 주일 오전 8시 30분
4. 학생 성가가수 : <토> 오후 학생미사 후(학생회 월례  
회 오후 6시)
5. 신자 카드작성을 위한 호주 가족사진 준비하세요
6. 몽소승천 대축일 미사안내 : 오전6시, 10시, 오후8시
7. 본당 운영에 관심과 협조 그리고 기도들...

□ 지난주 봉헌금 : 81,265원

####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성우회 후
2. 성우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최제홍씨 역)
3. 성모승천 대축일 : 15일  
미사 : 새벽 5시 반·10시·저녁 8시
4. 복자 청년회 발족 : 교문-조성호 회장님,  
지도자-김화영 선생님, 회장-이종구, 부회장-최  
준열·김미자, 총무-백종숙, 재무-이영현

####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성  
사도 회장 유석중

- ※ 축 성모승천 (8월 15일)  
미사 : 5시 30분, 10시, 2시, 8시(성체 강복식)  
고백성사 : 아침 저녁미사 전후
  - ※ 교황 바오로 6세 서거  
주도미사 : 오늘 매 미사중
1. 자모회 : 10시미사 후
  2. 장우회 : 저녁미사 후
  3. 성가정회 : 월 오후 2시
  4. 셋별 시범 셀 : 오늘 오후 3시, 유치원

□ 지난주 봉헌금 : 141,980원, 교무금 : 123,100원

#### (파티마)

전화 ③7249

주임 신부 문정현  
사도 회장 채수현

1. 성모승천 대축일 : 전야미사-14일 오후 7시 반  
당일미사-15일 10시·오후 8시
2. 첫 영성체 : 몽소승천축일 10시미사에 있음
3. 3일기도회 : 12일-14일, 오후 7시 반
4. 어린이 미사 : 방학동안 어린이 주일미사는 토요일  
오후 4시
5. 여름 교리학교 :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쳤음  
교리교사님에게 감사합니다
6.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 24일 신부님을 위해 기도들...
7. 교무금 납입자 : 김복남, 임길순, 소병희(각3,000원)  
고래석 (10,000원), 박봉수 (2,000원), 오영길 (1,000)